2013 한국노총 기본교안 1

노동자와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

- 목차 -

■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
- 우리는 노동자
- 노동자는 누구인가

■ 노동조합의 의의와 역할
-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 노동조합은 어떤 조직인가
- 노동조합의 성격
- 노동조합의 역할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

우리 개개인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
남성이나 여성, 장년이나 청년, 서울사람이나 지방사람, 고졸이나 대졸과 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사회적 규정은 무엇인가? 우리는 대개 어느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것이다. 임금을 댓가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사회는 우리를 노동자라 부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호칭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왠지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같거나, 오래된 '이념'의 느낌이 배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모순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집단적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보이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당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우리는 노동자

■ '근로자'와 '노동자'

-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선 정작 '노동자'란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대개 '직원'이나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직업란에 쓸 땐 '회사원'이라고 할 것이다.
- 노동법도 마찬가지인데, 법의 명칭은 '노동'법이지만 법문에는 '노동자' 대신 '근로자'로 쓰여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Mayday인 5월 1일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 '노동자'라는 말에 뭔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걸까?

■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 수동적 존재 vs 주체적 존재

- ‘노동자’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근로자’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근로자’엔 “勤 부지런하게 勞 일하는 者 사람”이란 이미지가 더해져 있다.
- **‘근로자’라는 말에는 ‘국가나 기업을 위해 순종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국가나 기업이 베푸는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 반면 **‘노동자’는 ‘스스로 힘써 주체적으로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주관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자로써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주체적인 존재를 뜻한다.

▷ 일해서 임금을 받는 개인 vs 자본가와 대칭관계에 있는 계급 또는 그 성원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조의 정의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이에 의하면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노무과장이나 경영지원팀장, 나아가 전무나 상무, 심지어 사장도 월급사장이라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 중세봉건시대 사회구성이 지주와 농노로 구분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뉜다. **‘노동자’는 사용자 또는 자본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 계급이란?

‘계급’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사회적으로 동일한 조건이나 비슷한 수준 아래 놓여 공통된 이해관계와 행동 방식을 지니는 집단’을 뜻한다.

고대사회나 중세사회엔 신분을 기준으로 계급이 나뉘었다면,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특히 생산관계 중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소유하지 못한‘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된다.

※ 우리나라에 계급이 있나?

우리나라의 봉건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철폐됐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사회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계급이 정말 없는걸까? 오른쪽 표를 보자. 갓 10살 전후로 한 초등학생들이 수백억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을 일하고도 가질 수 없는 재산을 어릴 때부터 쥐고 자란 부자어린이들에게도 계급은 없는 걸까.

10억원 이상 어린이 주식부자

2013년 4월 30일 종가기준 단위: 억 원

순위	성명	나이	성별	직업	평가액
1	허○홍	12	남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 장남	429.9
2	허○홍	9	남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 차남	174.6
3	임○연	10	남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친인척	86.0
4	임○연	5	남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친인척	84.4
4	임○지	5	여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친인척	84.4
4	임○아	5	여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친인척	84.4
4	김○우	6	여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친인척	84.4
4	임○지	7	여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친인척	84.4
4	김○세	9	남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친인척	84.4
10	구○모	12	남	구본천 엘비인베스트먼트 사장 장남	60.5
11	구○모	10	남	구본천 엘비인베스트먼트 사장 조카	55.5
12	박○민	10	여	박상돈 예산그룹 회장 딸	52.7
13	황○호	9	남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 아들	42.5
13	황○온	9	남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 아들	42.5
15	전○인	9	남	전필립 파라다이스 회장 차남	36.2
16	이○준	12	남	이승용 삼영무역 사장 아들	34.6
17	황○우	7	남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 조카	25.5
17	황○우	12	남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 조카	25.5
19	김○우	10	남	김한준 백산 대표이사 아들	22.4
20	전○혁	11	남	전필립 파라다이스 회장 장남	21.9

한국드라마는 특이하게도 거의 모든 작품에 재벌이 등장한다. 재벌이 친숙할리는 없으니,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경이란 가로막힘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현실에서 그들과 그들을 동경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장벽. 그것이 계급이다.

■ 정부나 기업이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 부르는 이유

- 일제강점기에는 '노동자', '노무자', '종업자', '근로자'라는 말을 섞어 사용하다 1940년대에 들어 '근로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근로자'는 '국가'와 '국민'을 강조하던 '일제전시동원 체제'의 용어였다.
- 해방이후 '노동자'라는 표현이 되살아났지만, 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개칭하는 등 '노동자'를 '근로자'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의도였다. '노동자 의식'을 희석시켜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하려 한 것이다. 이후 '노동자'라는 말은 사회주의운동과 연관된 것으로 쓰이거나, '공돌이', '공순이'와 같이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의미로 여겨지도록 해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조차 멀어지게 됐다.
- '노동자'에 담긴 계급적 개념을 배제한 '근로자'라는 말을 씀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노동자를 개별화시키며 계급의식을 인위적으로 거세하려 한 것이다.**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

1963년 박정희 정권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OECD 국가중에 노동절을 또다른 명칭으로 이름붙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하루빨리 노동절이 제 이름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자' 는 누구인가

■ 노동자는 자본주의와 함께 생겨남

- 노동은 인류의 초창기부터 있었다. 원시사회에선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취, 농사와 목축을 했다. 고대사회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는 강제로 노동했다. 하지만 이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근대 자본주의 시작과 함께 생겨났다.**
-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 자본주의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부터이다. 이후 18~19C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완성될 때까지 노동자 계급의 형성이 계속 됐다.

※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폭력이 필요했다

- 초기 자본주의는 수공업자들이 상품을 생산해 시장에 판매하거나 상인들이 수공업 공장을 차려 자본을 축적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본제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자본축적이 필요했다. 그리고 임금노동제도가 형성되는데 있어서도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만들어져야 했다.

- 이는 자연스러운 이행이 아닌 폭력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본원적 축적> 혹은 <시초 축적>이라 불린다.

▸ 식민지 수탈

유럽의 절대주의 왕정국가들은 15세기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식민지를 정복하여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자원과 생산물을 약탈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 인클로저운동과 강제노동법

15세기 말 섬유산업의 발달로 양모가격이 폭등하자 대지주들은 기존 식량 경작지를 양 사육지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부터 시작돼 프랑스, 독일 등지로 확산된 이같은 현상을 '인클로저운동'(Enclosure movement, 종획운동)이라 부른다. 이로써 수많은 농민이 토지에서 쫓겨나 비참한 생활을 해야했다.

또한, 16~17C 유럽 각 국가는 강제노역장 설치, 강제수용 및 강제노동법 제정 등을 통해 농민이나 유랑민들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노동하게 만듦으로써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했다.

■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인가?

- '자본주의'는 장고한 인류역사에 비춰볼 때 극히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16세기부터 시작해 18세기 후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서구사회에 일반화되어 현재에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근대사회 특유의 사회경제체제이다.
- 자본주의의 특징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허용하며, △사람들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내다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 보다 많은 이윤획득을 위해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해 대량생산을 하고,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본가에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다.
- 요약하면,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중심이 된 사회경제체제**를 말한다.

■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이중'의 자유		사용자(자본가)와의 관계
봉건시대의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자유로움	➡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계약관계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함)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약자의 지위)

- 노동자는 사용자(자본가)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관계이지만, 노동력이 본인의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노동력의 사용권을 가지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구직 대기자가 다수인 현실에서 실직의 위협이 상존하므로 고용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 실제로 자본주의는 초기부터 노동자에게 냉혹했다. 자본가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했다.
- 노동자들은 단결과 투쟁으로 자본의 착취와 이를 비호하는 권력의 탄압에 맞섰다. 숱한 희생을 딛고 굽힘없는 투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해왔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었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노동조합이었다.

※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생산의 도구', '경제성장의 수단',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노동자의 불만과 저항을 약화시키는 것에만 골몰했다. 노동자를 '산업역군'으로 칭송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히 짓밟았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저항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각종 교육시스템과 언론매체를 동원해 '노동자는 열등한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입시켜왔다. 스스로를 자본주의 경쟁의 패배자, 무식하고 무능력한 존재,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본과 정권이 만든 사회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는 패배주의를 조장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착취에 맞서고 불의에 저항하며 노동자야말로 역사발전의 주체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노동자가 세상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역이자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으로써, 노동자가 손을 놓으면 세

상이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권리를 자각한 노동자는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 당당히 섰다. 특히 한국의 노동자는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직선제를 쟁취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을 이끌었다.

토론해 봅시다

1.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조합원들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그러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해 봅시다.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역할

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투쟁

-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본가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했다. 생존을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낮은 임금을 주는 한편 하루 16시간의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나 직업병, 건강악화에 고통받았다.
- 1800년대 초중반 각 국가에서 아동노동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생산과정에 기계가 도입되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노동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 초기 단계의 노동자 투쟁은 주로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경제적 성격을 띠었고, 비조직적인 폭동형태로 나타났다.

※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

17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1830년대 유럽과 미국까지 확산된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경제투쟁이다. 러다이트라는 말은 1811년 노팅엄의 한 공장에 '장군 네드 러드'라는 이름으로 협박장이 전해진 이후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그 공장의 기계를 파괴했던 사건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장제 산업이 확대되면서 임금저하와 실업으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계나 창고를 파괴하고 방화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던 투쟁으로써, 흔히 노동자들의 '기계파괴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자 홉스봄 등은 러다이트 운동을 기계파괴와 구분하며,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자본가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노동자 조직의 출현

- 노동자들은 형성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조직이 출현했다.

- 초기엔 산업혁명 이전부터 만들어진 수공업자들의 길드(동업조합)가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위한 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으나, 조직 특유의 직업적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인해 기계제 생산과 공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라졌다. 이후 수공업자 출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직업별 또는 전문 직종별 조직이 결성되었지만 동업조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 전통적인 숙련공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노동자들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숙련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광범한 노동자층을 포괄하는 대중조직, 노동자 집단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계급조직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조직의 중심으로 되었다.
- 18세기 중후반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독일(1820년대), 에스파냐(1840년대), 이탈리아(1840년대~50년대) 등지로 확대되었다.

※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조직된 것은 1898년 함경북도의 성진본정부두조합이었다. 이 당시 노동조합은 법적 근거도 없었고 인원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근대적 의미의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결성된 것은 1920년대 이후이다.

■ 국가의 탄압과 합법화

- 영국은 1799년 '단결금지법'을 제정해 파업과 노동조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1791년 '르 샤플리에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합법적 단결을 금지했으며, 독일에서도 1847년까지 30개가 넘는 법령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 이 당시 대부분 노동조합은 비밀결사체로 전환해 비합법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회보험제도가 없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상호부조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꾸준히 조직할 수 있었고, 전국적 연대와 완강한 투쟁으로 단결금지법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 1824년 영국의회는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1800년대 중반 이후 각각 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2.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 사용자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요구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노동자는 자본가(사용자)에 대해 약자의 위치에 서있다. 힘의 우위에 선 자본가나 공정성을 잃은 정치권력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
- 노동조합은 계급조직이자 대중조직으로써, 노동자들이 참여하기 쉽고 요구실현을 위한 활동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대표적인 노동자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노동자간에 경쟁을 붙여 서로를 갈라놓으려는 자본의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노동자 공동체와 집단적 이익을 지키고 있다.

■ 법적으로 더 큰 노동권을 보장

-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왔다. 노동권의 핵심이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 단체행동에 대한 권리이다.
-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자본주의 국가들은 왜 노동조합을 인정했나?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있다. 물론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이다. 그런데 만약 모든 국가가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노동자와 민중의 폭동으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료나 제도권 학자들도 동의한다. 법에 관한 격언중에도 노동권을 성문화한 “노동법이 자본주의의 예지가 낳은 적자(嫡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노동조합은 자본의 무한이윤추구경향을 제어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했다.

3. 노동조합은 어떠한 조직인가

▷ 일반적 정의

- 노동조합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노동자의 경제적 후생을 위한 조직이라는 **웹(Webb) 부부**(영국의 사회민주주의 이론가이자 개혁가인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의 정의**가 인용된다.

>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상적인 조직체"*

- 이 정의는 △노동자들 스스로 결성하고 운영한다는 자주적 원칙, △노동생활 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 △노동조합의 지속적 성격을 말해준다.

▷ 노동법상 정의

- 한편,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노조법의 정의 역시 웹부부의 정의와 유사하다.
- 하지만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만을 말하고, 사회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국가의 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지만, 노동조합의 정의는 노동자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를 위한 실천이 노동조합의 구성과 목적,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는 힘**이다.

※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은 올바르지 못한가

정부나 기업, 보수언론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매도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이

기적인 밥그릇싸움', '불순한 정치파업'이라는 말이다.
이는 임금인상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경제투쟁은 이기적이지만 순수하고, 정치적 성격의 투쟁은 애초부터 '불순'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니다. 여기엔 노동조합의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 문제 해결뿐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한 단체이다.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임금과 근로조건과 같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의 법·제도와 정책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한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내외인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결정에 개입하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4. 노동조합의 성격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다.

-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성격규정엔 2가지의 의미가 있다
- 첫 번째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만드는 조직이며, 다른 계급의 구성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노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농민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 레미콘 지입차량 운전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나?

80년대 이후 자본은 보다 큰 이윤창출을 위해 고정적인 노동계약 대신 비정규직·계약직과 같이 유연한 노동계약, 하청·파견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 등장한 것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량 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 예다.
사용자들은 고정적인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들을 개별사업자로 등록케 해

사용자-노동자 계약관계가 아닌 개별 사업자간 계약관계로 전환했다. 사용자 입장에선 임금 이외의 고정비용을 줄일뿐더러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도 훨씬 자유로워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대부분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린다. 이들의 실제 업무가 대부분 사용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이들의 법적신분은 '개인사장'이므로 노동권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른 경제수단이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경제적 종속상태에 있는만큼 이들 역시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회적 보호를 해야 한다.

- 둘째, 노동조합은 사용자나 정부가 만들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기존 노동조합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 결성을 주도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써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대중 조직이다.

- 노동조합은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다. 대중조직이라는 성격이 노동조합의 위력을 키웠다. 노동조합은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단결할 때 그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 대중인 조합원의 처지와 취향은 천차만별이다. 나이, 성별, 직종, 학력, 고향, 정치성향 등에 따라 각양각색의 요구를 가진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므로 노동조합엔 경쟁과 갈등의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 사용자나 정치권력은 이 틈을 비집고 노동조합을 분열시켜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수많은 노동조합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었던 데도 정치권력이나 자본의 직접적인 탄압만이 아니라 조직의 갈등과 분열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
- 따라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 또한 자본의 전략인 노동자간 경쟁을 거부하고 차별을 없애며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조합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 한편 대중조직에서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대표자와 일부 간부들의 뜻으로만 노동조합을 운영하게되면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참여와 지지가 줄어들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된다. 모든 조합원을 노동조합 운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은 계급 조직이다.

- 직종이 다르고, 사업장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르지만,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공통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고, 국가권력 또한 대체로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때 비로소 임금과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이나 자본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요구하고 관철하는 조직이다. 투쟁이 아닌 협상, 대결이 아닌 화합의 노사관계를 지향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인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놓쳐서는 안된다.

※ 노동조합은 의사협회와 같은 이익단체와 어떻게 다른가

의사협회, 학원연합회,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단체를 이익단체라고 부른다. 이익단체는 특정한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사회집단을 일컫는다. 임금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노조 역시 이익단체의 하나로 분류되곤 한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익단체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것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사회 전체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하기에 다른 이익단체들과 달리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다.

5.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가입하는 단위노동조합과 이들의 상급단체라 할 수 있는 연합체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단위노동조합

- 조합원 개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노동조합을 단위노조라고 부르는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갖는 현장노동조합을 의미한다.
- 단위노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기업별 노조

- 각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 기업별 노조체제가 형성된 국가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에콰도르 등이다.

② 산별노조

-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 산별노조는 노동자들이 직접 구성원으로서 가입하여 참여하는 노동조합 형태로써, 동종산업의 기업별노조가 구성원이 되는 산별연맹과 구분된다.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별노조를 기본 체계로 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비교>

	장점	단점
기업별 노조	- 기업내부 문제 대응이 용이함	- 중소규모 기업에서의 조직화가 어려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를 낳을 수 있음 - 사회·경제·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산별노조	- 교섭력·투쟁력 강함 - 산업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응이 용이함	- 집행부 관료화나 현장활동 약화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기업별 노조' 체제가 됐을까?

일제시대 우리나라 초기의 노동조합은 지역별 노조 또는 '인쇄공노동조합'과 같은 직업별 노조가 주된 형태였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미숙련·실업노동자가 증가하고 전국적 조직건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직업별 노조는 '전조선인쇄직공조합총연맹', '조선직공총동맹'과 같은 산별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1940년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지하에 잠복했던 노동조합운동은 해방이후 다시 전면에 등장하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형태였다. 하지만 1947년 미군정은 노동법령을 통해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만을 허용하였다. 이는 좌익계열인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정부 수립후 1953년 제정된 노동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기업별 노조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1950년대 기업별노조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강제해산되었고 1963년 노조법 개정으로 산별체제로 재편되었으나 형식만 산별노조일뿐 내용과 하부구조는 기업별노조였다.

산별조직형태와 기업별 교섭체제의 공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제3자개입금지를 통해 기업별노조를 강제함으로써 끝이 났으며, 기업별 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③ 직업별 노조

- 직업별 노조는 인쇄공·선반공·전기공·목수 등 동일한 직종이나 직업의 노동자가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 노동조합의 형태 중 가장 일찍 발달한 것이며, 유럽에서는 숙련근로자들의 권익보호조직으로 등장하였다.

④ 일반노조

- 직종이나 산업 또는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노동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 보통 동일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 연합체 조직

- 연합체조직은 여러개의 단위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산업별 연맹이나 노총같은 노동조합 조직을 말한다.
- 연합체가 단순한 협의연락기구에 불과한 것은 아니며 연합체의 규약에 의하여 산하 노동조합들을 통일하고 있다.

분 류	특 징
산업별 연맹 (전국적 산별 중앙조직)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단위노조들이 모여 구성하는 연합체
노총 (전국적인 중앙조직)	노동조합들이 전국적으로 뭉친 연합체 예) 한국노총,민주노총
국제노동운동 조직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 결성한 조직 예) 국제노련(ITUC), 산업별 국제조직(IMF, ICEM, UNI, ITF) 등

6. 노동조합의 역할

1) 기본적 역할

: 경제적 역할 / 인권적 역할 / 공동체 역할 / 지도적 역할

■ 경제적 역할

○ 고용안정

: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직은 곧바로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고용안정이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이자 노동조합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이다.

○ 임금인상

: 임금은 대부분 노동자의 수입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노동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이다. 개별 노사관계는 힘의 불균등이 존재하므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집단적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 복지개선

: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각종 복지혜택이 기업차원에서 주어지는 만큼 복지개선은 임금인상과 함께 노조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 **경영감시 및 참여**

: 사용자의 방만하거나 비윤리적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또는 기업의 한 주체로써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견인한다.

■ 인권적 역할

○ **인권 보호 및 차별개선**

: 사용자나 중간관리자의 부당한 처우나 비인격적 대우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업장내 연령, 성,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적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감시하고 예방한다.

○ **노동조건 개선**

: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 **산업안전보건감독**

: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작업시설과 취급물품 등의 안전여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 공동체 역할

○ **공동체 형성**

: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공동체를 통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상호부조**

: 조합원이 애경사를 맞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노동자들끼리 상호부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은 대부분 노조가 이 역할까지 담당한다. 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상호부조를 하기도 한다.

○ **자주적 복지향상**

: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지와 별도로 노동자 스스로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노동조합도 매점, 자판기 운영 등의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이로써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 지도적 역할

○ 노동자 의식 형성

: 자본의 가치와 논리가 아닌 노동자의 관점으로 정세와 다양한 현안문제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자 문화 형성

: 위계적이거나 차별적인 기업문화, 소비적·향락적 문화를 지양하고, 공동체와 연대·진보의 가치와 성평등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과 캠페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2) 확장된 역할

: 정치적 역할 / 사회적 역할 / 국제적 역할

■ 정치적 역할

○ 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위한 정치권 압박 및 연대

○ 노동자 집단적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존중 사회 건설위한 정치참여와 세력화

■ 사회적 역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

○ 사회공공성 강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활동

○ 사회 민주화와 진보·개혁을 위한 실천과 연대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와 실천

■ 국제적 역할

○ 이주노동자 보호

○ 해외진출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 노동조합의 사회연대활동

사회연대는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급, 계층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결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로 노동자의 권익이 저하되고, 노동운동의 힘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1대99의 양극화가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착취당하고 소외받는 여러 계급·계층의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사회연대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상급단체인 총연맹만의 역할이 아니다. 현장 노동조합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개입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일상적으로 협력할 때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노조나 사업장이 어려울 때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연대는 △농민·빈민·영세자영업자·학생 등의 대중조직과 여성·생태·평화·인권 등 시민단체와의 일상적 교류와 협력 △반신자유주의, 정치개혁, 복지강화, 통일 등 사회개혁을 위한 공동활동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 등이 있다.

토론해봅시다

1.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신입 또는 기존 동료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필요성 3가지만 찾아 정리해봅시다.

2. 우리 노조가 기업별 노조인 경우 산별노조와, 산별노조인 경우 기업별 노조와 비교해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찾아 봅시다.

3. 교안에서 제시한 <노동조합의 역할>중 우리 노조가 가장 잘 하고 있는 역할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역할 3가지도 찾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해 봅시다.